

국산 컨테이너검색기 상용화 성공

정읍 방사선, 아이스캔 설립... 상용 모델 내달까지 개발 완료... 연말까지 광양항에 설치

국내 항만에서 전량 수입해 운용 중인 컨테이너검색기의 국산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로 인해 수입대체효과와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세계 컨테이너검색기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윤지섭)는 컨테이너검색기 상용화를 위해 8월 내 신규 연구소기업을 (주)아이스캔을 설립하고, 컨테이너검색기 상용 모델을 내달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관세청이 지정하는 항만 부지에 컨테이너검색기를 연말까지 설치, 관세청이 이를 인수해 내년 본격 운용한다.

컨테이너검색기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을 이용해 화물을 개장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내부의 물질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검색 장치로, 국내에는 전량 수입해 컨테이너검색기 14대가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핵심 기술인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을 지난해 자체 개발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컨테이너검색기 상용 모델 제작에 돌입, 현재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해양플랜트 및 산업기계 제조 전문기업인 태경중공업(주)과 합작투자를 통해 국내·외 컨테이너검색기 사업을 수행할 연구소기업인 (주)아이스캔을 이달 내로 설립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관세청이 지정하는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단지에 올해 12월까지 컨테이너검색기를 설치하며, 관세청은 이 검색기를 인수해 내년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컨테이너검색기가 상용화되면 현재 대당 수십억원에서 110억원에 육박하는 제품의 수입대체와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조원대 규모(2천여 대)의 세계 컨테이너검색기 시장에 국산 제품 수출도 기대된다.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는 2010년부터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며, 기술 시험 결과 투과력, 해상도 등 물체를 확인하고 식별하는 능력에서 외국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관세청과 '컨테이너검색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청과의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상용화에 주력해 왔다.

컨테이너검색기 제작 기술은 방사선



수색구조 합동훈련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11일 중앙119 소속 특수구조대,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 등과 '수색구조 역량강화 합동훈련'을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펼치고 있다.

발생 기술을 비롯해, 화물이송, 방사선 검출, 영상처리·제어 등 여러 분야를 집약한 종합기술로, 이전에는 미국 베리안(Varian), 라피 스캔(Rapiscan), 중국 뉴텍(Nuctech) 등 해외 일부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던 전략 기술이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전량 방사선 비파괴 검사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

고 있는 등 컨테이너검색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컨테이너 검색 기술과 해파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아이스캔과 이젠바이오(주)를 제2의 풀마비엔에 이체(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정읍=김태환 기자



시민들의 준법 정신 배운다

전주준법지원센터, 대전솔로몬로파크서 초등생 법 체험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1일 관내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국내최초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프로그램을 펼쳐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솔로몬 로파크에서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 등 법체험을 통해 사법절차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하반기부터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이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위

한 시민법교육, 캠페인 사업, 체육 특기생을 위한 스포츠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법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신청은 전주준법지원센터로 일정 문의 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로 하면 된다.

최우철 소장은 "우리 센터는 기존 범죄예방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교육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폭염 아스팔트 지면온도 도시숲의 2배

인조잔디·우레탄·아스팔트 한낮 50도 이상... 도시숲 하루 종일 25.4도~27.6도

연이은 폭염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스팔트나 인조잔디 지면온도가 도시숲보다 2배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녹색연합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조잔디와 우레탄, 아스팔트, 흙, 천연잔디, 숲속의 지면온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숲속 흙, 천연잔디, 운동장 흙, 아스팔트, 우레탄, 인조잔디 순으로 지면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북녹색연합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지면 특성에 따른 온도를 조사한 결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 아스팔트의 지면온도는 한낮 50도 이상을 기록했으며 흙

과 천연잔디는 40도 전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건지산 도시숲의 지면온도는 하루 종일 25.4도~27.6도를 기록해 아스팔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장 높은 지면온도를 기록한 것은 인조잔디로 오후 2시 58.7도까지 올라갔다.

특히 아스팔트의 지면온도는 하루 중 오후 2~4시 사이에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낸 데다 하루 종일 3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햇볕이 드는 인조잔디와 아스팔트, 흙과 천연잔디의 지면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게 나온 반면, 숲 속 그늘 지면온도는 대기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이는 도시숲을 만들 경우 나무의 자외선 차단과 증산작용으로 인해 대기온도가 주변보다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지면 온도는 원래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북녹색연합은 설명했다.

형질별로 대기온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주기상지점 발표 온도도에 비해 아스팔트 위와 인조잔디구장 위 등의 온도가 2.1~9.7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민형 기자

또한, 지면형질별 대기온도는 지면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크지 않았지만, 건지산 숲속의 경우 한낮(12~16시)의 대기온도가 다른 지면형질의 대기온도에 비해 3.8~11.7도 낮게 나타나 역시 온도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지산 숲속의 온도는 기상청 온도보다도 2도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여러 종류의 지면 온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도시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조사결과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도로와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느티나무와 같은 대형 그늘나무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위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도 신임 기획관리실장에 최병관 씨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에 최병관 도민안전실장(46)이 발령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최우 전 기획관리실장의 후임으로 최병관 실장을 발령했다.

최병관 신임 기획관리실장은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후 1994년 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부 지역경제과장과 교부세과장, 전북도의회 의회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고민형 기자



추석전 대형마트·영화관 등 화재예방 집중 점검

국민안전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소방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추석 연휴전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관서의 예방활동과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중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화재건수는

688건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고, 부상자는 가스폭발·방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명이 늘어난 29명이었다.

이에 안전처는 점포시장 1414곳·대형마트 634곳·백화점 102곳 등 판매시설 2702곳을 비롯해 영화관 294곳, 철도역 57곳, 공항 15곳을 포함한 역·터미널 679곳 등 화재취약대상 3675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뉴시스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